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 전역 및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 플랫폼 다국어 교육 및 인식 캠페인 개시

더 많은 청중을 위한 서비스 확장은 뉴욕 주민들에게 자택에 머물러라는 뉴욕주의 핵심 메시지 전달

주지사, [Jennifer Lopez](#)와 [Alex Rodriguez](#)와 함께 더 많은 청중에게 도달하는 인스타그램 캠페인 #IStayHomeFor 시작

생명을 구하는 자택에 머물기 메시지를 통해 뉴욕의 모든 지역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주 노력을 바탕으로 구축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를 포함한 주 전역의 모든 뉴욕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멀티 플랫폼, 다국어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택에 머물러라는 주 정부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더 많은 청중에게 중요한 의무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을 확대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인스타그램 캠페인 #IStayHomeFor를 시작하여 [Jennifer Lopez](#) 및 [Alex Rodriguez](#)와 함께 주 정부의 생명을 구하는 자택에 머물기 메시지를 더 많은 주민에게 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정말 악랄하며, 우리 모두는 서로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유지해야만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방법으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자택에 머물러 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택에 머물러 달라는 메시지를 포함한 다음의 노력을 통해 주 전역의 모든 지역사회에 도달하려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 **"고 페이퍼(Go Paper)" 캠페인:** 뉴욕 주민들 모두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주 정부는 프레시다이렉트(FreshDirect)를 포함한 배달 서비스와 협력하여 전단을 인쇄하고 지역 배달 물품에 이를 부착하는 "고 페이퍼"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단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절차를 준수하고 손을 씻으며 자택에 머물도록 격려합니다. 이번 주부터 프레시다이렉트는 매주 10만 건의 배송에 전단을 포함합니다. 주 정부는 지역 기업에 연락하여 모든 배달 물품에 전단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전단은 [여기](#)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 **야간 소식지:** 3월 17일에 시작된 이 야간 이메일 소식지는 19만 명의 구독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뉴욕주의 대응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실과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개인은 [여기](#)에서 소식지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 **라디오 DJ를 활용:** 뉴욕주는 주요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국 DJ와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고 청취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거리 두기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 **링크드인(LinkedIn):** 비즈니스 중심의 선구적 사상가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지사 팀은 링크드인을 사용하여 개인 보호 장비 소싱에 대한 메시지, 팬데믹 중 민간 부문의 영향 및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광고 위원회(Ad Council)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 포털의 뉴욕 허브:** 뉴욕주는 광고 위원회와 제휴하여 영어와 스페인어로 자택에 머물러 생명을 보호합시다(Stay Home, Save Lives) 메시지를 강조하는 뉴욕주 전용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자료에는 30초 및 60초 TV 광고 및 프리롤 광고, 라디오 광고, 소셜 미디어 게시물, 온라인 배너 및 옥외 광고(Out-of-home, OOH) 간판 및 게시판이 포함됩니다. 자료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준비 메시지:** 뉴욕의 다양한 다국어 지역사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가 출연한 공익광고 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현재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자막이 포함된 방송, 케이블 및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에서 영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방송 라디오에서도 공공 서비스 공지가 방송되고 있으며, 민족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인쇄 광고를 개발하였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모든 지역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디지털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표지판 및 게시판:**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주요 도로에서 디지털 신호를 통해 "집에 머물고 생명을 보호하세요(Stay Home, Save Lives)"라는 주지사의 중요한 메시지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픽 캠페인 - 생명을 구하기,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기:** 이 자료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픽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그래픽 캠페인은 혼잡한 공간과 빈 뉴욕 공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 **넥스트도어(Nextdoor):**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 일시 중단(New York on PAUSE) 연장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요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한 넥스트도어 앱의 메시지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 **스냅챗(Snapchat):** 뉴욕주는 주식회사 스냅챗과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이 스냅챗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해 중요한 자택 머무르기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스냅챗 플랫폼은 미국 내 13~34세 중 75%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는 이번 주에 출시될 예정이며 특별히 뉴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최근 주 전역의 젊은이들에게 주요 최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스냅챗 계정인 nygov를 출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